

“소통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금융 구축”

박춘원 전북은행장, 지역은행 역할·책임·금융 운영 방향·중장기 성장 전략 등 경영 구상 설명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금융 경영 의지를 밝혔다.

박 은행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비롯해 중·저신용자 금융 운영 방향, 금고와의 협력 강화, 중장기 성장 전략 등 전반적인 경영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전북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은행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한 기여 역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을 둘러싼 ‘고금리 영업’ 이미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은행장은 “전북 도내에서 취급하는 일반 여신 금리는 시중은행이나 다른 지방은행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이나 외국인 금융 등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외형적으로 고금리 이미지가 고착화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금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금융 경영 의지를 밝혔다.

리 경쟁을 넘어 종합적인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뿐만 아니라 출연금, 협력사업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기관 영업점은 전담 지점 체계로 운영해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보다 긴밀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 상호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의 전북혁신도시

진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은행장은 “일부 시중은행은 국민연금 등 특정 자금 운용과 연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로 핵심 사업을 이전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역 밀착형 금융 활동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은행은 이미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

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외부 금융기관과의 진출에 즉각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국제금융타운 조성 관련 전북은행 본점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박 은행장은 “여러 차례 제안을 받은 바 있으나 경제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은행 경영은 상징성뿐 아니라 비용 구조와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기존 거점을 중심으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은행장은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 변화보다 지역사회와 고객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상생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지역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지역사회에 대한 가장 큰 기여”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은행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JB카드 ‘설레는 설馬중 페스타’

설 명절 맞아 캐시백·대형마트 선물세트 할인 제공

전북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JB카드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JB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설레는 설馬(마)중 페스타’ 경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응모한 JB개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 명절 관련 업종인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배달앱, 주유·충전소, 대중교통, 면세점 등에서 누적 3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1만 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주요

대형마트 선물세트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전국 이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전점은 물론 온라인몰에서도 참여 가능하며, 선물세트 구매 시 이용 금액대에 따라 상품권 증정 또는 최대 50% 즉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업종별 무이자 할부 혜택도 마련됐다. 오는 6월 30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여행·항공·면세점, 병원, 손해보험, 가전, 가구, 학원, 대학 등록금, 차량 구매 등 11대 주요 업종에서 2~3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와 4~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다. 4~9개월 이용 시에는 1회차, 10~12개월 이용 시에는 1·2회차 할부 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부산국제식품박람회 참여 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이하 경진원)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부산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식·음료 제품을 보유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제품 홍보와 신규 유통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된 기업은 부산국제식품박람회에 개별 부스로 참가하게 되며, 현장 전시와 홍보를 통해 유통사 및 바이어

상담은 물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는 전북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있는 식·음료 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유통업체 및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 모집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며, 이메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형 에너지 거버넌스 가동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 열려

전북 RE100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6일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대회의실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2026년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얼라이언스 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첫 공식 회의로, 운영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신규 참여기관 가입증서 전달식을 비롯해 2025년 추진 성과 공유, 2026년 운영계획(안)

보고,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규정(안) 제정 논의 등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회의에는 운영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2025년 제2차 운영협의회 이후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비영리기관 등 13개 기관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얼라이언스는 총 102개 기관 규모로 확대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분과별 운영 성과도 공유됐다. 얼라이언스는 정책, 수소, 풍력, 분산에너지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정기회의와 포럼, 신규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통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6일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대회의실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2026년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해 총 18회의 분과 회의와 7건의 대외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에너지 현안 대응과 신사업 발굴을 이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얼라이언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안)도 처음으로 논의됐다. 운영규정에는 얼

라이언스의 목적과 기능, 운영협의회 및 분과 역할, 신규과제 기획체계, 회의 운영 원칙 등이 담겼으며, 향후 민간 중심의 자립적 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근 기자

농식품부, 식품기업 협력 가공식품 대규모 할인행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정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의 손잡고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2월 한 달간 식품기업 15

개사와 협력해 리면, 식용유,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설 성수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커머스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행사가 운영돼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기업은 농심, 오뚜기, CJ제일제

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롯데푸드, 빙그레, 매일유업, 동서식품 등 총 15개사다.

할인 대상은 리면과 면류를 비롯해 장류, 양념·조미료, 김치, 육가공품, 과자·시리얼, 커피·음료, 유제품, 간편·즉석식품 등 40개 부류에 이른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기술교류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안전 분야 기술 고도화와 공동 연구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지난 5일 정읍시에 위치한 전기재해연구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과 전기안전 분야 신기술 발굴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배계섭 안전이사과 송길목 전기안전연구원장, 한국전력공사 김대환 전력연구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GFM(Grid Farming) 활용 기술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고도화 △분산·유류자원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전기설비 화



재사고 원인 분석 등 전기설비 안전성과 기술 향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의 증가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력계통 안정성과 전기안전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공동 연구가 가능한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GFM은 인버터가 전력계통의 전압과 주파수를 스스로 생성해 전력망 역할을 수행하는 제어 방식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